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과 탈(脫)내셔널리즘

- '방법화된 이동'을 중심으로 -

서동주*

djseo9123@snu.ac.kr

Contents

1. 서론 : '정치/문학'의 이분법을 넘어
2. '이화(異化)'라는 방법의 생성— 「봄바람」에서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으로
3. 1920년대 조선인도항사와 피식민자의 '울분'
4. '민족예고이즘'과 포스트콜로니얼
5. 결론

Abstract

昭和初期の中野重治文学は、「プロレタリア文学」として見なされた。しかし、これまでほとんど注目されることがなかったが、この時期の中野文学は「移動」に対する豊富な関心で満ちており、またそれが「方法」というかたちで投射された「移動の文学」でもある。本稿は、この時期の代表作とされる「雨の降る品川駅」を取り上げて、中野の文学的想像力において「方法化された移動」というものの持つ意味を考察した。それをまとめると次のようである。

第一に、中野は視点の移動がもたらす「異化」の方法を通して、既存の天皇表象に対する政治的批判を行なった。第二に、詩「雨の降る品川駅」の想像力は1920年代朝鮮人渡航史を含む、半島と列島の間で行なわれた往復する移動に基づいている。第三に、戦後中野の行なった自己批判は、ナショナリズムへの屈服に対する告白ではなく、ナショナリズムを克服することの困難さについての慎重な模索の産物であった。

Key Words : 中野重治, 脱ナショナリズム, 異化, 移動, ポストコロニアル (나카노 시게하루, 탈내셔널리즘, 이화, 이동, 포스트콜로니얼)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1. 서론 : ‘정치/문학’의 이분법을 넘어

쇼와 초기의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 문학은 당시 일본의 문단을 석권했던 ‘프롤레타리아 문학’이라는 장르 규정 속에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 시기의 나카노의 문학은 ‘이동’에 대한 풍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또한 그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투사된 ‘이동의 문학’이기도 했다.¹⁾ 본고에서는 이 시기의 대표작으로 간주되는 시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雨の降る品川駅)」(초출: 『개조(改造)』1929년 2월호)에 초점을 맞춰 그의 문학적 상상력에서 방법화된 이동이 갖는 함의를 고찰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대한 비평은 ‘정치’와 ‘문학’에 대한이분법적 발상 위에서 이루어졌다. 즉, 문학텍스트가 제시하는 주제의 사상적 타당성을 문제시하는 비평의 방식(정치적 비평)이 있다면, 이외는 달리 문학텍스트를 그것의 정치성과 구분되는 ‘문학성’의 관점에서 접근·평가하는 비평(문학적 비평)으로 양분된다. 본고의 대상인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에 관한 비평도 이러한 구도 안에서 이루어졌다.²⁾ 다만,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대한 문학적 접근이 ‘문학성’에 대해 ‘정치적 우위성’이 초래한 폐해, 다시 말해 문학적(예술적) 완성도의 결여를 지적하는 데 그 초점을 두었다면, 나카노의 문학은 그러한 프롤레타리아 문학 안에서 드물게 문학적 성취를 보여준 사례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 예컨대 오다기리 히데오(小田切秀雄)는 나카노의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이 갖는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이를 테면 ‘이 작품의 감동은 이별에 관한 서정의 농후한 절실함과 그 깊은 진실에 의한 것이

1) 쇼와 초기의 나카노 시게하루의 소설의 경우, 이 시기에 쓰여진 28편 가운데 작중인물의 이동을 모티브로 한 것은 13편이고, 사물의 이동이 이야기의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5편, 그 외에 철도와 신문 등 이동에 관한 직업에 종사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2편이다.

2) 예를 들어 평론가 하야시 고지(林浩治)의 ‘이 시가 식민지 조선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기초를 이루는 사고는 ‘교조적 공산주의’에 경도되어 있었다’와 같은 언급은 정치적 비평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 (林浩治(2002) 『浅かった朝鮮認識』 館野哲編 『韓国・朝鮮と向き合った36人の日本人』 明石出版, p.141) 한편 일찍이 구보카와 쓰루지로(窪川鶴次郎)가 제시한 ‘이별의 서정(わかれの抒情)’ 그리고 오노 주사부로(小野十三郎)의 ‘반역의 서정(反逆の抒情)’이란 용어는 나카노를 무엇보다도 ‘서정시인’으로 규정하려는 전후 문학적 비평의 시발점에 위치한다.

지만, 이것은 단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이별의 정서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함께 천황제 지배에 맞서 싸워 온 동료인 재일조선인의 혁명가들이 체포되어 추방당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 동지로서의 깊은 인간적 슬픔의 통절함이 그것에 걸맞은 선율에 의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종의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주장한다.³⁾

정치적 비평이 나카노 문학의 기초를 이루는 정치사상의 내용을 계통적으로 밝혀냄과 동시에 그것의 타당성에 대한 학문적 검증의 가능성을 열었다면, 문학적 접근은 무엇보다도 그의 문학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음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비평은 각각 '정치성'과 '문학성'이라는 서로 구분되는 비평의 기준을 고수한다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문제에 공모적(共謀的)으로 관여한다. 첫째, 비평을 정치와 문학이라는 구도 안에서 폐쇄적인 것으로 만들었으며, 둘째 정치와 문학에 대한 어떤 초월적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비평을 사후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귀결로서 해석의 과정에서 텍스트의 생성 과정에 관여하는 동시대적 맥락이 간과되는 양상을 드러냈다.

본고는 이러한 '정치/문학'의 이분법이 초래한 비평의 폐쇄성과 관념성을 극복한다는 문제의식 위에서 나카노 문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려는 하나의 시론에 위치하며, 그 실마리로서 '방법으로서의 이동'에 주목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방법으로서의 이동'이란 새로운 비평의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나카노가 텍스트에 개입시킨 고유한 문제의식을 의미하며, 본고는 그것의 형성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 분석의 중심적 시점인 '방법으로서의 이동'은 다음과 같은 고찰의 결과로서 제기된 것이다. 「비 내리는 시나가와」라는 시를 문학과 정치성에 대한 초월적 관점을 괄호에 넣고(판단중지, epoche) 본다면, 무엇보다도 서로 구별되는 세 가지 수준의 이동이 시적 세계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첫째, 시는 열도에서 추방당하는 조선인과 시인의 이별에 집중되어 있지만 동시에 열도로 돌아와 천황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조선인을 상상적으로 그리고

3) 小田切秀雄(1999) 『中野重治—文学の根源から』、講談社、p.247

있다. 이 시의 서사구조는 열도로부터의 추방과 열도로의 귀환이라는 왕복하는 운동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추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도에서 열도로의 도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시가 포괄하는 이동의 시간대는 과거에서 미래까지 이어지고 있다. 둘째, 일본의 나카노 연구자인 린슈쿠미(林淑美)는 ‘그대들은 비에 젖어 그대들을 쫓아내는 일본천황을 생각한다’는 구절을 들어 그것은 ‘쫓겨나는 조선인의 시선이 포착한 천황을 일본인(=시인)이 상상한 것’⁴⁾이라 분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달리 말하면 조선인이라는 ‘타자를 향한 시점의 이동’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추방당하는 조선인을 ‘일본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앞방패 뒤 방패’로 지칭하는 부분은—전후 이 구절을 둘러싸고 일어난 ‘민족예고이즘’을 둘러싼 논란은 접어두더라도—명백히 사회주의 사상이 부여한 계급이란 관념을 통해 민족을 넘어서려는 지향성(초월하는 이동)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이 시에서 ‘이동’은 시의 세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감행하는 물리적 공간의 이동에 한정되지 않고, 시의 주제와 시점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 말하는 ‘방법화된 이동’이란 이처럼 단지 모티브와 소재의 수준을 넘어서 이동이 시적 구조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개념화한 것이다.

본고는 이상의 분석 위에서 방법으로서의 이동과 시의 주제—‘천황제 비판’, ‘계급적 연대’ 등—의 구조적 연관성을 파악하는 한편 ‘이동’을 내재화한 시적 상상력이—물론 시인의 고유한 감수성과 무관하지 않겠지만—무엇보다도 1920년대 제국일본의 정치적 지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덧붙여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이동은 예외없이 ‘일본’이란 명칭이 동반하는 내셔널한 어떤 것을 넘어서려는 시인의 의지를 표상하고 있는데⁵⁾, 본고는 이러한 탈내셔널리즘의 상상력을 둘러싼 비평의 역사적 변천을 내셔널리즘의 극복이라는 문제를 속에서 재검토하고자 한다.

4) 林淑美(2005) 『昭和イデオロギー：思想としての文学』平凡社, p.81

5) 첫 번째 이동은 다민족제국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구분되는 내셔널한 공간 사이의 이동, 구체적으로는 피식민자의 지극히 정치적인 이동을 의미한다. 두 번째 이동은 시인 스스로가 내셔널리티를 추체함을 통해 넘어서는 이동이라 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이동은 내셔널리즘 자체를 계급주의로 상대화하고 나아가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본다면, 이동의 방법에 주목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나카노에게 있어서 내셔널리즘의 문제로 진입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이화(異化)’라는 방법의 생성—「봄바람」에서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으로

시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은 1928년 어대전(御大典)에서 정점에 달한 천황제 내셔널리즘—개개인을 신민(臣民)이라는 아이덴티티로 동일화하는 것—의 부활을 향한 열도의 집단적 흥분의 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고발하고 있다. 린슈쿠미는 그 이면의 사건이란 피식민자에 대한 정치적 배제이며,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배제의 사실을 일본인들에게 보다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나카노는 조선인이라 불리는 피식민자에게 천황의 암살을 주문하는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한다.⁶⁾ 그러나 1928년 천황제국가 일본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배제당한 것은 내지의 조선인만이 아니었다. 그 해 일어난 이른바 ‘3·15 사건’이 보여주듯 당시 일본내의 좌익세력도 ‘국체파괴세력’으로 간주되어 철저히 탄압받았다. 따라서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에서 천황을 정치적 타자를 배제하는 권력으로서 그려냈던 나카노가 3·15 사건을 소재로 한 전작 「봄바람(春さきの風)」(초출: 『전기(戰旗)』1928년 8월호)에서 천황제 문제에 대해 침묵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소설 「봄바람」은 3·15 사건의 와중에서 갓난아이를 잃고 또 남편(소설 속에서는 부친으로 되어 있음)과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모친’에 초점을 맞춰 이른바 정치적 사건 속에서 일어난 가족의 붕괴(해체)를 그린 작품이다. 그러나 「봄바람」은 ‘3·15’라는 정치적 사건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당시부터 ‘정치성’보다는 ‘예술성’이 더 주목을 받아왔다. 이러한 예술적 평가의 근거는 텍스트 안에 천황제 비판에 관한 직접적인 정치적 담론의 표현을 의식적으로 회피했던 나카노의 표현방식이었다.⁷⁾ 예를 들어 전후 문학적 비평의 관점에서 나카노 문학을 체계화 한 히라노 겐(平野謙)은 ‘나카노 시게하루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뜨거나 높았다면, 그 작품들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중략)…그

6) 林淑美(2005), 앞의 책, pp.50-51

7) 「봄바람」에서 나카노는 의도적으로 고문의 장면을 회피하고 있으며, 주인공의 정치적 각성이라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일반적인 서사도 도입하고 있지 않다.

런 의미에서 나카노 시게하루의 시도는 비록 소박한 형태지만 (이 작품에서) 최초로 예술적 결실을 거두⁸⁾었다고 「봄바람」을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에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대해 문학적 비평을 추구한 히라노 겐의 이력이 암시하는 것처럼, 낮은 문학성이 문제가 되는 프롤레타리아 문학 가운데서 드물게 문학적 성과를 보여준 것으로 나카노 문학을 ‘구제’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히라노로 대표되는 「봄바람」에 관한 문학주의, 즉 정치로부터 문학의 분리를 주장하는 발상에 입각한 독해는 작자의 정치적 목소리가 억제된 「봄바람」의 표현방식에 몰입한 나머지 프롤레타리아 문학자인 나카노가 결코 회피할 수 없었던 ‘3·15’ 사건에 대한 정치적 입장, 그리고 그것의 핵심에 위치하는 천황제 문제를 간과해버렸다.⁹⁾

「봄바람」은 히라노 겐이 말한 것처럼 단지 정치적 탄압이 빚어낸 비극을 단지 ‘예술적’으로 그려낸 작품이 아니다. 이 텍스트가 중요한 이유는 당시 좌익일반의 천황제 인식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문학적 비판’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텍스트는 다이쇼시기를 통해 약체화된 천황제의 정치적 재건과 더불어 확산되어 갔던 당시 ‘가족국가론’적 천황제에 대한 상대화의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봄바람」은 국체파괴세력에 대한 대량검거사건인 3·15 사건을 배경으로 그 속에서 일어난 ‘아이의 죽음’과 ‘부부의 이별’이라는 비극의 원인에 천황을 도입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천황과 국민을 ‘가장’과 ‘자식’으로 간주하는 가족국가론에서와 달리, 이 텍스트 속의 천황은 갓난아기를 죽음으로 내몰고 한 가정을 붕괴로 이끄는 파괴하는 권력으로 표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권력으로서의 천황이라기보다는 개인과 국가를 연결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속에 작동하는 천황의 정치적 역할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천황제를 오로지 봉건적 군주제의 변형으로서만 간주했던 당시 좌익일반의 인식과는 그 실질을 달리한다.¹⁰⁾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인식이 ‘군주제 타도’와 같은 정치적 담론의 도입을

8) 平野謙(1969) 「中野重治論Ⅱ」 『文学運動の流れのなかから』, 筑摩書房, pp.135-136

9) 줄고(2008) 「나카노 시게하루와 타자의 정치학」 『일본근대학연구』 제19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37-44

10) 더불어 그 의미를 확대해 보자면 문학을 정치적 언설의 인용으로부터 구축하려고 했던 당시의 프롤레타리아 문학론에 대한 반발이라 할 수 있다.

××××にあらはれ
 ××××
 ××顎を突き上げて保ち
 ××××××××××××××
 ××××××××
 溜もりある××の歡喜のなかに泣き笑へ
 (×는 『개조』판 초출에서 복자 처리된 부분을 나타낸다)¹²⁾

위의 인용에서 복자 처리된 부분은 모두 천황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적어도 시의 초출에서 왜 조선인들은 ‘비 내리는’ 어느 날 일본을 떠나야만 했으며, 다시 그들이 일본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를 오직 시의 문면만으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복자투성이의 초출시를 ‘일본 프롤레타리아트의 앞 방패 뒤 방패’란 구절을 근거로 일본인 시인이 조선인에게 보내는 계급연대의 시로서 읽는 것은 가능해도 천황제 비판의 시로서 읽어내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의 전후 수용사만 보더라도 이 시가 천황제 비판의 시로서 그 의미를 명확히 획득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와 초출의 조선어역이 발견된 이후였다.¹³⁾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을 천황제 비판을 넘어 격한 천황에 대한 증오의 시

12) 후일 조선어의 발견에 의해 복원된 복자부분은 다음과 같다.

×××記念→御大典
 君らは雨に濡れて君らを××××××を思ひ出す→逐ふ日本天皇
 君らは雨に濡れて××…××を思ひ出す→彼の髮の毛、彼の眼鏡、彼の髭 彼の醜い猫背
 ××××に近づき→彼の身邊
 ××××にあらはれ→彼の面前
 ××××→彼を捕へ
 ××顎を突き上げて保ち→彼の
 ××…××→彼の胸元に刃物を突き刺し
 ××…××→反り血を浴びて
 ××の歡喜のなかに泣き笑へ→復讐

13) 사토 겐이치(佐藤健一)는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에 의한 이 시의 조선어역의 발견(1975년)과 그에 따른 원시의 복원을 계기로 이 시의에 대한 평가의 중점이 ‘서정적 시에서 ‘천황 비판’의 시로 전환되었다고 지적한다.(佐藤健一(1992) 『『雨の降る品川駅』—中野重治(作品別現代詩を読むための研究事典—詩はどのように読まれてきたか)』 『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37卷3号, pp.56-67) 또한 김윤식은 초출에는 워낙 복자가 많아서 그 누구도 전모를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논하고 있다.(김윤식(2001) 『한·일근대문학의 관련양상 신론』 서울대출판부, p.144)

로서 위치 짓는 것은 시의 후반부, 즉 이른바 천황에 대한 암살을 연상시키는 장면에 의거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의 주제를 시인의 천황제 인식이라는 문맥에서 보고자 할 때 후반부의 대목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은 시의 후반부에서 암살(복수)의 대상이 다만 ‘그(彼)’라고만 언급되어 있어 이 부분만으로 ‘그’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시의 후반부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가 ‘일본천황’을 가리킨다는 것은 시의 부제에 보이는 ‘어대전(御大典)’,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대들은 비에 젖어서 그대들을 쫓아내는 일본천황을 생각한다’ 혹은 ‘그의 흉하게 굽은 등을 생각한다’라는 앞선 구절을 참조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즉 시의 후반부를 장식하는 천황에 대한 ‘복수’의 장면은 추방당하는 조선인들이 천황을 떠올리는 선행하는 장면에 결정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다음과 같은 의문을 피할 수 없다. 즉, 이러한 시의 구조에서 논리적으로 ‘일본천황’이라는 단어만을 복자로 처리해도 ‘그’의 지시대상이 불분명하게 되어 천황 암살의 장면은 자립적인 의미를 획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검열의 권력은 ‘일본천황’만 아니라 ‘굽은 이마’, ‘흉하게 굽은 등’과 같은 구절까지 복자로 처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 굳이 천황이라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외면묘사가 쇼와 천황을 의미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게 연상되기 때문이 아닐까? 바꿔 말하자면 천황의 외모에 대한 그 묘사의 사실성이 복자라는 권력의 개입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천황에 대한 사실적 묘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천황이 무엇보다도 신성(神聖)한 존재이어야 한다는 공식적인 관념을 위반했기 때문일 것이다.¹⁴⁾ 천황의 표상은 결코 사실성의 시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언제나 신성을 지닌 존재로서 드러나야 했다. 실제로 나카노는 사실적이고 그런 이유로 세속적이라 할 수 있는 천황의 모습을 시 속에 새겨 넣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염, 안경, 굽은 등과 같은 단어는 시적 표현으로서는 다소 차원이 낮다는 느낌이 여전히 있지만, 당시의 증오, 거의 생리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는 관계되어 있다. 굽은 등과 같은 것은, 나도 그렇지만 특별히 조악한 것은 아니다.

14) 근대 일본에서 천황표상에 관해서는 다음 자료가 자세하다.フジタニ・タカシ(1994)『天皇のページント：近代日本の歴史民族誌から』米山リサ訳，日本放送出版会

다만 옛날에는—패전까지—천황이 관병식에 등장할 때, 천황 혼자만 흰 말을 타고 등장하고 다른 장군들은 누구도 흰 말을 타지 않았다. 천황기를 나누끼며 오는 그 사진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은 천황을 비스듬히 앞에서 찍은 것이었다. 심하게 굽은 등을 감출 수 있는 각도에서 천황을 찍은 것이다. 그것을 볼 때의 느낌은 매우 불쾌한 것이었다. 나는 증오가 일반적으로 저(低)차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¹⁵⁾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사실성을 은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천황에 대한 신성화에 대해 나카노는 일부러 육안으로 포착한 사실적 천황을 대치시켜 그 은폐의 정치적 작용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천황표상을 둘러싸고 나카노는 일종의 이화(異化)의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린슈쿠미는 이 점에 주목하여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을 ‘천황에 대한 일본어의 신체표상에 균열을 새긴 시’로서 새롭게 자리매김 한다.

일본인의 눈에 비친 것이 ‘용안의 신성함(竜顔の神々しさ)’, 또는 ‘용안의 신성함’과 같은 형태로 정형화된 것 밖에 천황의 신체를 표상할 수 없는 것이 일본인이 라면, (시인인) 일본인이 의탁했던 피식민국인들의 눈에 비친 천황은 구체적인 신체이며 (중략) (그런 의미에서) 이 시는 천황에 대한 일본어의 신체표상에 균열을 새긴 시인 것이다.¹⁶⁾

「봄바람」과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을 통해서 나카노가 시도한 천황 비판이란 정치의 공간에서 생산된 천황비판의 담론을 문학의 공간으로 도입(인용)하는 방법이 아니었다. ‘정치의 우위성’에 스스로를 속박했던 프롤레타리아 문학은 적극적으로 문학의 언어 속에 정치적 담론을 개입시켰다. 반면 나카노는 굳이 문학이라는 장을 빌려 천황을 정치적으로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정형화되고 절대화되어 있던 천황의 표상에 대해서 그것이 은폐(억압)하고 있던 또 하나의 천황상을 끌어내 기존의 것에 대치시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기존 표상의 억압적 성격을 폭로하고, 나아가 그것 자체의 정당성을 상대화시키는 것, 즉 말 그대로 기존의 천황 표상에 대한 ‘이화’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나

15) 中野重治(1975) 「『雨の降る品川駅』のこと」 『季刊三千里』5月号, p.77

16) 林淑美(2005) 앞의 책, pp.81-82

카노는 분명 ‘군주제 폐지’를 내세운 27년 테제의 영향 하에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문학자로서 나카노는 정치적 비판을 문학의 주제로 담아내면서도 결코 정치적 담론을 날 것 그대로 문학에 끌어들이는 손쉬운 방법에 안주하지 않았다. 히라노 겐과 같은 연구자는 「봄바람」에서 억제된 정치적 목소리에 착목하여 당시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취한 정치의 우위성과는 이질적인 나카노를 발견하고, 거기서 나카노의 문학성(예술성)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나카노는 결코 정치와 분리된 곳에 존재하는 문학을 상정하지 않았다. 그의 문학은 분명하게 동시대의 자신을 둘러싼 위태로운 정치적 현실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문학이 정치에 종속되는 형태로 표출하는 방식을 거부했다. 그는 표상 공간에서 전개되는 정치라는 방식으로 문학의 정치성을 유지하며 동시에 기존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표상 체계와 다른 방법을 지향했던 것이다.¹⁷⁾ 「봄바람」에서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으로 이어지는 이화의 방법은 정치와 분리된 문학의 표현이 아니라, 천황의 표상이 수행하고 있는 정치학(개인의 집단화)에 대항하는 문학의 정치적 개입으로 봐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1920년대 조선인도항사와 피식민자의 ‘울분’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은 쇼와 천황의 즉위식을 앞둔 비 내리는 어느 날, 천황에 의해 열도로부터 추방이 정해진 조선인들과 시인(일본인)의 이별, 그리고 쫓겨나는 자들의 천황에 대한 울분과 증오를 ‘테러리즘’을 연상시키는 장면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이 때문에 ‘추방’이라는 모티브는 줄곧 이시의 해석에서 중요한 착목의 지점이 되었다. 그러나 잠시 사건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열도로부터의 추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반도에서 열도로의 도항(渡航)

17)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해야 할 것이 기존의 천황표상에 대한 이화를 시도하면서, 나카노가 그것을 위해 천황제 국가의 타자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봄바람」의 모친은 국체 파괴세력에 대한 일제 단속이 있었던 ‘3·15’ 당시 연행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며,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의 조선인들은 천황의 즉위식을 앞두고 열도로부터 추방당하는 존재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1928년의 천황제 국가로부터 배제된 정치적 타자들이었다. 이화의 방법을 정치적 타자의 시점과 결합시킨 점에서도 「봄바람」과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을 연결하는 방법론적 연속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시는 1920년대 조선인의 열도를 향한 도향의 역사를 그 전사(前史)로서 갖는다.

이런 점에서 시의 부제에 등장하는 김호영은 시를 1920년대 조선인도향사에 접속시키는 매개의 역할을 한다. 김호영은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在日本朝鮮労働総同盟, 이하 조선노총) 중앙위원을 거쳐 이후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日本労働組合全国協議会, 이하 전협) 조선인 위원회 간부가 된 재일조선인노동운동의 중심적 활동가였다. 1929년 12월, 오사카에서 열린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의 전국대표자회의에서 기존의 조선인조직을 해체하고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로의 해소가 결정되었을 때, 전협으로의 발전적 해소(합동)론을 주장했다. 조선노총의 중앙상임위원이었던 그는 이후 전협의 조선인위원회 간부로서 1933년에 검거될 때까지 전협 활동에 종사했다. 이러한 이력이 보여주듯이 김호영이란 존재는 이 시가 1928년의 어대전이란 정치적 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1920년대 재일조선인의 열도로의 이동, 그리고 그들의 지위개선을 추구했던 재일조선인노동운동이라는 또 다른 역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김호영이란 존재가 환기시키는 조선인의 열도(내지)로의 도향이라는 역사적 맥락과 시적 세계와의 관계는 단지 전사의 의미를 넘어 시의 해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천황암살을 연상시키는 장면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추방을 명령한 천황에 대한 분노의 결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시나가와에서 쫓겨나는 이들의 목적지가 낯선 이국이 아니라 ‘부모의 나라(父母の國)’, 즉 고향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고향으로의 추방에서 ‘천황암살’의 동기를 구하는 발상에는 어떤 비약이 느껴진다. 적어도 시가 표현하고 있는 천황에 대한 격한 복수의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방에 대한 반발을 넘어서는 좀더 절실한 심리적인 동기가 필요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으로의 추방과 일본으로의 귀환이라는 열도와 반도 사이의 이동(왕복)의 배후에 천황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가 배경으로 하는 열도와 반도 사이의 이동의 역사에서 천황은 매우 ‘모순적’인 존재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19년의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는 치안문제를 들어 조선인의 열도로의 도향을 적극 규제하다가, 1922년 12월 조선의 노동력 대한 열도 내부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도향제도’를 실시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제도의 실시의 배경으로 조선총독부가 이 자유도항의 명분으로 ‘일시동인(一視同仁)’이라는 동화주의 이데올로기를 내걸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조선인도 일본인과 같은 천황의 신민이기 때문에 도항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야마와키 게이조(山脇啓造)는 ‘자유도항’의 실시와 동화주의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¹⁸⁾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조선인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일본신민이라는 ‘일시동인’의 명분상, 그 명분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 도항을 관리하는 것은 가능해도 제한은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한 측면이 현저하게 나타난 것이 1922년 12월과 24년 6월의 도항증명제도의 폐지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시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제국의 정부는 쇼와 천황의 즉위식(御大典)을 앞두고 조선인을 위협세력으로 간주하여 열도 밖으로 추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당시 일본대중당의 아사하라 겐조(淺原健三)는 어대전을 앞둔 상황에서 치안당국이 취한 조선인에 대한 일련의 조치는 ‘조선인이라면 어대전에서 뭔가 (위험한)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¹⁹⁾ 1923년 9월 관동대지진 당시 발생한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집단학살 사건의 배후에는 제국의 일상에 깊숙이 진입한 타자에 대한 내지일본인의 배외주의적 심리가 작동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1928년의 상황은 그 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이러한 집단적 심리가 천황제 내셔널리즘의 재건이라는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부상함으로써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⁰⁾

이와 같이 1920년대 반도와 열도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조선인의 이동의 역사에서 천황은 내지(열도)로의 도항을 허용·재촉하는 이념의 근거이면서 동시에

18) 山脇啓造(1994) 『近代日本と外国人労働者』, 明石出版, p.271

19) 제56회 제국회의에서 행한 아사하라 겐조(淺原健三)의 발언에 관해서는 萩野富士夫(2001) 『特高警察体制史』せきた書房을 참조.

20) 관동대지진과 1928년의 쇼와천황의 즉위식과의 연관성에 관해 1929년에 접어들어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을 주도했던 자경단이 ‘대일본연합청년회’로서 새롭게 조직되어 도쿄 시내의 치안유지를 위해 쫓겨가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이다. 자세한 내용은 諸岡知徳(1999) 『中島敦 『巡查の居る風景』論—『奴等』/『俺達』の物語』 『甲南大学紀要』, p.29』

조선인을 열도에서 강제적으로 내쫓는 차별과 배제의 논리적 근거로서도 작용했다.²¹⁾ 다시 말해 천황은 이렇게 피식민자인 조선인에게 한편으로는 차별 해소의 담론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차별과 배제라는 정치적 탄압자의 모습으로도 나타났던 것이다.

시가 묘사하는 추방당한 조선인의 천황에 대한 복수의 동기는 그에 앞서 일어난 강제추방이 초래한 증오의 결과로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인과론은 당시 다민족 제국 일본에서 천황의 정치적 역할을 지배/피지배라는 단순한 대립도식 속에 위치시키고, 지배자의 억압적인 권력행사로서 간주하는 발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거듭 지적하지만 시 속의 조선인이 ‘추방’을 강요받은 것은 분명해도, 추방지가 ‘고향’이라는 점에서 추방을 복수의 동기로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 여기에 본고는 당시 제국 안에서 천황이 보여준 모순적인 정치적 의미에 주목했다. 즉, 천황은 언제나 이민족을 배제하고 억압하는 권력으로만 작동하지 않았으며, 배타적인 문화내셔널리즘의 상징을 기본적 성격으로 하면서도 때때로 동화주의의 이데올로기 속에서는 평등주의의 화신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시가 그리고 있는 피식민지는 도항과 추방에 모순적으로 관여했던 천황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표출하는 ‘울분’도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따라서 복수의 심리적 동기는 강제추방에 대한 증오를 넘어 평등과 배제가 교차하는 가운데, 그러한 모순이 초래하는 지배의 기만성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바꿔 말해 시가 표출하고 있는 피식민자의 울분은 조선인과 일본인을 ‘신민’으로 호명하며 차별을 부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식민지적 타자에 대한 경계와 차별을 그만둘 수 없었던 제국의 모순적 양면성이 불가피하게 자극하는 지배의 기만이 초래한 심리적 결과인 것이다.²²⁾

21) 니시나리타 유타카(西成田豊)는 자유도항의 실시의 배경에는 ‘저지’와 ‘조선부허가’라는 서로 다른 제국의 논리가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것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제국’적 지배에서 유래한다고 말한다. 즉, ‘조선도 일본 ‘제국’의 일부인 이상 조선인이 내지로 도항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는 없다.(조선적허가의 측면) 하지만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제국’적 지배 그 자체의 근원에 조선민족에 대한 차별의식이 존재하는 한 조선인이 내지로 유입되는 것은 내지의 치안을 악화시킨다(저지의 측면)는 논리가 그것이다.’ 西成田豊(1997) 『在日朝鮮人の「世界」と「帝国」』東京大学出版会, p.172

22) 줄고(2008) 「전후 일본문학의 자기표상과 보수주의—나카노 시게하루 『비 내리는 시나가와

이러한 해석의 연장에서 천황에 대한 복수의 동기로 간주되었던 추방의 의미도 새롭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추방’이 상징하는 것은 확산되는 다문화적 상황이 초래하는 내셔널리즘에 대한 침범을 둘러싼 제국주의 본국에서 발생하는 배외주의이다. 팽창하는 제국은 필연적으로 피식민자들의 제국 중심으로의 이동을 촉진한다. 그리고 수많은 제국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외부자의 증가는 종주국의 사람들에게 외부자에 대한 경계심리를 더불어 증폭시킨다. 제국일본의 경우, 그것은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학살사건으로서 표출되었다. 그리고 이 당시 일본인(자경단)이 일본인과 외국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역대 천황과 기미가요의 암기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학살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증가하는 외부자에 대한 제국측의 경계와 불안 심리다. 지진이라는 재난이 초래한 혼란 속에서 내지의 일본인들은 잠재되어 있던 외부자에 대한 불만을 폭력적으로 표출한 것이었다. 피식민자(외부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인식은 이러한 불안 심리의 또 다른 표현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 도항의 자유화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내지의 치안 태세도 더불어 강화했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제국의 차별적 심리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차별적 인식의 연장으로 쇼와천황의 즉위식을 앞두고 제국의 치안체제는 조선인을 포함한 피식민자, 부락민, 정신병자 등을 경비상 주의가 필요한 자로 규정하여 한층 강력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이다.²³⁾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이 뿌리를 두고 있는 역사란 단순히 이민족차별의 역사가 아니다. 이민족(피식민자)의 내지로의 유입을 허용하면서도 또한 그렇게 제국의 일상세계로 진입한 외부자들에 대한 경계나 불안 심리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자기모순의 운동을 반복하는 제국의 동요와 연결되어 있다.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은 이와 같이 모순된 제국의 역사와의 구조적인 연관 위에서 그 의미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역」의 전후 수용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제38집 한국일본어문학회, pp.95-96
23) 内務省警保局(1927) 『昭和天禮警備記録』

4. ‘민족에고이즘’과 포스트콜로니얼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이 일본근대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작품으로서 간주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식민지족의 일원인 시인이 피식민자의 처지를 응시하면서 나아가 그들의 입장으로 다가가 시대가 그들에게 부과한 고통과 증오를 대변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인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한 동무’/‘일본프롤레타리아트의 앞 방패 뒤 방패’라 부르며 ‘그대들은 비에 젖어서 그대들을 쫓아내는 일본천황을 생각한다’, ‘…그의 흉하게 굽은 등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는 대목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계급적 연대’와 같은 관념적 사고와는 구별되는 타자에의 시점이동을 통해 상대의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언어로서 표현하려고 하는 지향성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초출의 시는 시인 자신이 준거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내셔널 아이덴티티로부터 벗어나려는 강렬한 탈내셔널리즘의 지향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시를 둘러싼 전후 비평의 기본구도는 이 시가 노정하는 또 다른 측면, 즉 내셔널리즘에의 구속성을 지적하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 과정에서 시인 나카노의 ‘민족에고이즘’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자기비판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특히 1990년대 이후, 즉 이른바 포스트콜로니얼 이론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는 초출이 보여주는 탈내셔널리즘의 지향성이 다시 주목을 받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시를 둘러싼 전후의 비평담론을 내셔널리즘의 극복이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검토의 목적은 기존 담론의 어느 한 쪽을 지지하기 위함은 아니라, 논쟁적으로 진행된 비평의 담론이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듭 언급한 초출의 지향성을 왜소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내셔널리즘에 대한 과소 평가에 공통적으로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함이다.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과 내셔널리즘의 문제를 생각할 때, 1929년 5월호의 『무산자』판 조선역의 발견 이후 전개된 시의 내셔널리즘에의 구속성을 둘러싼 비판과 나카노의 자기비판은 나카노의 조선인식과 관련한 재검토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시와 내셔널리즘의 관계

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조선의 프롤레타리아트를 ‘일본프롤레타리아트의 앞 방패 뒤 방패’라 부를 것이 상기시키는 조선과 일본을 일종의 계서열적(階序列的) 관계로 표상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왜 천황제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주체가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여기서 두 가지의 문제는 공통적으로 민족을 초월한 계급을 말하는 시의 문면 밑바닥에는 일본에 대해 조선을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놓는 의식이 흐르고 있다는 비판에 의해 촉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나카노는 자기비판의 형태로 응답을 내놓게 되는데, 그 자기비판이 나오기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시의 초출은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복자처리로 인해 그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와 초출의 조선어판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당초의 형태에 가까운 의미의 복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후 잘 알려진 것처럼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에 의해 조선어역을 참고로 한 초출시의 복원작업이 일어나게 된다.²⁴⁾

이렇게 해서 초출시에 가깝다고 간주되는 일본어판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후 윤학준과 김달수는 나카노를 방문해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을 둘러싼 대담을 하게 되었고, 그 대담의 와중에 ‘일본프롤레타리아트의 앞 방패 뒤 방패’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나카노의 ‘자기비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내용은 『계간 삼천리』의 1975년 5월 호에 게재되었는데, ‘민족에고이즘’이란 유명한 표현이 등장하는 자기비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지막 대목에서 일본프롤레타리아트의 앞 방패 뒤 방패라고 썼는데, 여기에는 ‘굽은 등’과는 다른, 민족에고이즘의 꼬리와 같은 것에 질질 끌리고 있다는 느낌

24) 『나카노 시게하루 전집』제 9권 월보에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의 조선어역을 발견했다고 적은 것은 나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말인지는 알 수 없다. 조선어역의 존재에 대해 안 것은 내가 최초가 아니다. 김윤식이 쓰고 大村益夫가 번역한 『상흔과 극복』의 236쪽에는 시가 『무산자』에 게재되었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다만, 내가 그것을 계기로 복자의 내용을 떠올릴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조선어를 직역한 것을 松尾尊允선생을 통해서 나카노씨에게 전했다. 나카노씨는 그때까지 조선어역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기뻐하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기억을 되살려 원시의 복원을 시도할 수 있었다. 나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었다.((中野重治(1979) 「著者うしろ書き」 『中野重治全集 第二十四卷』筑摩書房, p.679)

이 없어지지 않습니다.’²⁵⁾

‘일본프롤레타리아트의 앞 방패 뒤 방패’라는 구절과 더불어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시의 후반부의 천황암살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었다. 비판의 초점은 무엇보다 나카노의 천황제 인식에 관한 것이었다. 최초의 비판은 나카노의 신인회(新人會) 시절 동료였으며, 1933년 일본 공산당 규슈지부위원회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그 해 검거되어 옥사한 니시다 신지(西田信治)였다. 그는 1931년 5월 나카노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시의 마지막 장면은 코뮤니스트 일반에게 보이는 정치적 오류, 즉 ‘군주제의 철폐만을 위해 광분하는 자유주의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사회주의자로서의 나카노의 사상적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전후 등장한 천황암살의 내용에 대한 비판의 초점은 일본인인 시인이 천황 암살을 당사자인 일본인이 아니라, 피식민자인 조선인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의 형식에 있었다. 그 점에 대해 나카노는 다음과 같은 ‘자기 비판’을 수행하고 있다.

오히려 나는 설령 천황암살 따위를 생각해도 어찌서 시를 쓴 일본인 본인에게 그것을 생각하게 하지 않았을까? 어찌서 그것을 나라를 빼앗긴 쪽인 조선인의 어깨에 옮기려고 했던가? 그 점에 나라고 하는 나라를 빼앗은 쪽의 일본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내 일로 이 일을 기록한다. 동시에 이와 같은 잘못이 아직도 광범위하고 깊게 지배자측, 피지배자측, 민주적-혁명세력측을 포함해서 우리들 내부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²⁶⁾

25) 나카노 자신에 의한 ‘민족에고이즘’에의 무의식적 굴복을 의미하는 이러한 자기비판 이후, ‘민족에고이즘’이란 말은 민족을 초월한 계급적 연대를 주창하는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의 의심할 수 없는 결함 또는 나카노의 조선인식의 한계로서 자리잡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의 시로서의 서정성과 예술성, 그리고 시가 표현하고 있는 타자에 대한 태도는 결정적으로 부정당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이회성은 「나카노 시게하루와 조선」(1982) 『新日本文学』2月号 에서, 나카노의 조선문제를 생각하는 태도의 성실함, 진지함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일본프롤레타리아트의 앞 방패 뒤 방패”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역시 나카노 시게하루조차도, 당시대의 사상적 제약성-민족문제를 계급문제에 종속시키는 사고-에 매여 민족문제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 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조선어역의 발견자인 김윤식도 민족에고이즘의 침투를 지적하면서도 ‘60만 재일한국인의 존재감과 함께 인식된 작품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예술적 완성과 인식의 한계’라는 비판론의 전형적인 내러티브를 찾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나카노를 향한 비판론은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을 민족을 초월한 계급적 연대에 대한 지향과 일본인으로서의 자기의식이라는 상반되는 지향이 착종되어 나타난 텍스트로 간주하고 그 위에서 후자에 의해 전자의 지향이 퇴색해 버렸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종의 포스트콜로니얼 이론의 확산과 더불어 오히려 나카노의 자기비판을 ‘유해’한 행위로 간주하고 오히려 나카노를 내셔널리즘적 자기의식과 식민지주의적인 의식 모두 넘어선 문학가로서 적극적으로 간주하는 시도가 전개되고 있다.

초출 시의 탈내셔널리즘적 지향에 대한 재평가에 앞서 나카노의 ‘자기비판’에 대한 새로운 해석, 정확하게는 역전된 접근이 먼저 등장했다. 그것은 오니시 교진(大西巨人)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는 「콤플렉스 탈각의 당위(コンプレックス脱却の当為)」²⁷⁾라는 논문에서 나카노의 자기비판은 ‘한편으로 작지만 유의미한 구석이 있는 (것이지만)…(중략)…명백히 유해한 자기비판이다’고 규정하여 이전까지의 논의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러한 오니시 교진의 해석을 계승한 린슈쿠미(林淑美)는 포스트콜로니얼 비평의 문제의식을 도입하여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해석을 시도한다. 린슈쿠미는 우선 오니시의 비평을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에 관한 것 중 최상의’ 문장이라고 평가하면서, 오니시의 주장은 인용해 ‘나카노 시계하루는 이와 같은 (자기비판의 말)을 적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린슈쿠미는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이 보여주고 있는 조선과 일본의 연대는 천황에 의해 쫓겨나는 조선인이 품은 ‘증오’에 대한 감정의 공유 위에서 성립하고 있다고 말하며,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은 민족에고이즘에 의해 훼손되고 실질적인 연대에는 미치지도 못한 결함의 시가 아니라, 천황제 내셔널리즘의 열기에 사로잡힌 일본인에게 천황의 현실적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민족에고이즘과 같은 의식의 극복을 달성한 텍스트로 자리매김한다.²⁸⁾

26) 中野重治(1979) 「著者うしろ書き」 『中野重治全集第二十四卷』筑摩書房, p.679

27) 大西巨人(1999) 「コンプレックス脱却の当為」 『みず』3月号, pp.27-28

28) 林淑美(2005), 앞의 책, pp.67-84 린슈쿠미는 ‘일본프롤레타리아트의 앞 방패 뒤 방패’라는 구절에 대해서도 식민국민이 스스로의 의식무의식의 민족 에고이즘을 극복하고 ‘인간해방의 국제적 연대성’을 위한 것이라 말하며, 이 구절은 민족에고이즘의 꼬리와 같은 것에 질질 끌린 표현이 아니라, 천황제내셔널리즘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결한 모든 피억압자와의 연대를

또한 린슈쿠미는 천황암살에 관한 나카노가 자기비판의 과정에서 던진 질문을 ‘왜 천황을 겨냥한 시가 조선인에게 호소하는 형식을 취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꾼 후 그것은 ‘이 나라의 포학(暴虐)이 조선민족에게 한층 더 가혹했기 때문’이며, ‘그와 같은 무법이 천황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내놓는다. 그리고 시는 결코 천황 암살을 자극하고 있지 않으며 ‘설령 그런 것이 있든 없든 천황에 대항하는 시가 조선인에게 호소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중략)...조선인의 감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곤란한 것이 천황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그녀에게 ‘그대들은 비에 젖어서 그대들을 쫓아내는 일본천황을 생각한다’는 구절은 천황제를 이화시키기 위한 사고실험(시점의 상상적 이동)이며, 일본프롤레타리아트의 앞 방패이자 뒤 방패로 호명되는 조선인은 일본프롤레타리아트의 들러리가 아니라 일본인에게서 너무도 자명한 천황을 ‘탈구축(脱構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학적 장치인 것이다.²⁹⁾

그런데 여기에서 ‘민족에고이즘’을 민족을 넘어선 연대를 지향하는 시의 중대한 결점으로 간주하는 입장만이 아니라, 이러한 입장에 대해 시를 피식민자와의 감정의 공유를 통해서 ‘인간해방의 국제적 연대성’³⁰⁾을 실현했다고 평가하는 입장 모두 내셔널리즘이란 쉽게 극복가능하다는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나카노의 자기비판을 이끌어낸 측의 경우 민족에고이즘은 시의 결점 혹은 한계로서 간주되는데, 그러한 발상의 배후에 존재하는 것은 민족주의란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니 반드시 극복해야만 한다는 인식이다. 한편 내셔널리즘은 극복되어야 한다는 신념에 관해서는 나카노의 자기비판을 부정하는 쪽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나카노는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피식민자의 조선인과의 ‘일체화’ 그리고 ‘감정공유’를 통해 내셔널리즘을 초월한 시인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적어도 이들에 있어서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은 내셔널리즘과 식민주의의 극복한 그 예가 드문 귀중하고 위대한 반식민지

의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29) 다카하시 히로시(高橋博史)도 린슈쿠미와 유사한 견해를 표명한다. 즉, 나카노에게 민족에고이즘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인은 조선인들과 감정의 면에서 ‘일체화’되고 있다고 본다. (高橋博史(2005) 「中野重治・海と機関車」 『国文学解釈と鑑賞』2月号, pp.160-161)

30) 林淑美(2005), 앞의 책, p.84

문학의 정전(canon)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양자는 내셔널리즘의 극복을 하나의 당위로서 간주한다. 그러나 문제는 내셔널리즘의 극복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달리 보자면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을 둘러싼 전후의 논쟁은 내셔널리즘이 ‘계급’이라는 관념만으로 ‘타자’에 대한 공감만으로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 나카노의 자기비판을 좀더 섬세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나카노는 자신의 의식 속에 거의 무의식화된 형태로 작동했던 내셔널리즘의 힘을 ‘민족에고이즘’이란 말로 고백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나카노가 이것이 결코 자신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민주적—혁명세력 측’ 일반이 빠질 수 있는 관념적 오류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것은 자신이 저지른 오류에 대한 합리화로서 보일 수도 있지만, 시점을 달리하면 내셔널리즘을 극복한다는 것은 ‘민족에고이즘’과 같이 무의식화된 형태로 작용하는 내셔널리즘의 자장과 부단히 격투하는 것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나아가 내셔널리즘의 본질은 이데올로기의 형태를 띤 정치적 담론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고에 침투해 있는 어떤 유형화된 사고방식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따라서 나카노의 자기비판은 내셔널리즘에 대한 굴복의 고백도 아니며 무해한 후일담 정도로 치부될 수도 없다. 그것의 진정한 의의는 내셔널리즘의 극복을 믿어 의심치 않는 계몽주의에 대한 계몽주의적 비판이자 자기반성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방법화된 이동’에 초점을 맞춰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이 담고 있는 문학적 상상력의 양상을 내셔널리즘의 극복이라는 맥락 속에서 고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본고는 분석 과정에서 ‘이화의 방법’, ‘1920년대 조선인도향사’, ‘민족에고이즘’을 키워드로 설정하였다.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에서 구사된 ‘이화’의 방법은 1928년의 정치적 상황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전작인 「봄바람」에 그 기원을 둔다. 시에서 나카노가 시도한 것은 단지 천황을 정치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신성

성과 인간의 신체라고 하는 양립하기 어려운 양면성을 기존의 천황표상에 대치시키는 것이었다. 제국의 천황은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초월적 시점의 소유자임과 동시에, ‘안경과 굵은 등’의 신체를 가지는 존재이기도 했다. 나카노는 ‘신성’과 ‘초월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억압되어 온 세속적인 천황의 모습을 언어화하여 기존의 표상에 대한 이화를 시도했던 것이다. 본고는 우선 천황표상을 둘러싼 이화라는 방법의 생성과정을 밝히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천황의 표상을 둘러싼 이화라는 방법은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 아니라, 1928년에 발표된 「봄바람」에서 사용되었다.

둘째, 이 시는 어대전이라는 1928년의 정치적 사건을 포괄하는 1920년대 조선인의 내지도향사라는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 그 상상력의 기반을 두고 있다.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이 포착하고 있는 것은 천황에 의한 이민족 추방·배제의 순간이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추방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열도로의 이동이 있어야 한다. 내지로의 도향과 내지로부터의 추방이라고 하는 상반된 벡터를 시야에 넣었을 때, 그러한 이동의 역사 속에서 천황이 추방의 논리이자 동시에 또 이민족 포섭의 근거로서도 기능했다는 사실이다. 본고는 이러한 천황의 모순적 양면성으로부터 시의 후반부를 장식하는 천황에 대한 조선인의 복수의 동기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셋째, 전후에 이루어진 이 시를 둘러싼 비평은 초출이 내재하고 있는 탈내셔널리즘, 즉 내셔널한 상상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상상적 이동) 지향을 왜소화시켰으며, 시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불문하고 내셔널리즘에 대한 과소평가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본고는 이러한 분석 위에서 나카노가 행한 자기비판의 의미를 내셔널리즘의 극복의 극복은 의심하지 않는 내셔널리즘에 대한 계몽주의적 태도에 대한 계몽주의적 비판으로서 재정의 하였다.

참고문헌

- 김윤식(2001) 『한·일근대문학의 관련양상 신문』, 서울대출판부, p.144
 서동주(2008) 「나카노 시게하루와 타자의 정치학」 『일본근대학연구』제19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37-44
 서동주(2008) 「전후 일본문학의 자기표상과 보수주의—나카노 시게하루 『비 내리는 시

「나가와역」의 전후 수용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제38집, 한국일본어문학회, pp.95-96

小田切秀雄(1999) 『中野重治—文学の根源から』、講談社、p.247

佐藤健一(1992) 「『雨の降る品川駅』—中野重治(作品別現代詩を読むための研究事典—詩はどのように読まれてきたか)』 『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37巻3号、pp.56-67

高橋博史(2005) 「中野重治・海と機関車」 『国文学解釈と鑑賞』二月号、pp.160-161

舘野哲編(2002) 『韓国・朝鮮と向き合った36人の日本人』明石出版、p.141

西成田豊(1997) 『在日朝鮮人の「世界」と「帝国」国家』東京大学出版会、p.144

中野重治(1975) 「『雨の降る品川駅』のこと」 『季刊三千里』五月号、p.77

中野重治(1979) 「著者うしろ書き」 『中野重治全集 第二十四巻』筑摩書房、p.679

平野謙(1969) 「中野重治論Ⅱ」 『文学運動の流れのなかから』、筑摩書房、pp.135-136

水野直樹(1980) 「『雨の降る品川駅』の事実しらべ」 『季刊三千里』二月号、p.77

諸岡知徳(1999) 「中島敦『巡查の居る風景』論—『奴等』／『俺達』の物語」 『甲南大学紀要』、p.29

山脇啓造(1994) 『近代日本と外国人労働者』明石出版、p.271

林淑美(2005) 『昭和イデオロギー：思想としての文学』平凡社、p.81

❖ 투고일 : 2009. 6. 30

❖ 심사일 : 2009. 7. 16

❖ 심사완료일 : 2009. 7. 28